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태풍·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88.7%, 9월에 발생

- 소방방재청은 '09년 9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'을 발간하면서 9월은 태풍, 벌쏘임 등의 안전사고,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도함.
- 최근 20년간('89~08년) 9월 중 발생한 태풍·호우·폭풍의 총 발생횟수는 26회, 인명피해가 450명, 재산피해 금액이 5조 6,708억원이라고 밝힘.
 - 발생횟수와 인명피해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비슷한 수준이나, 재산피해는 태풍이 5조 273억원을 기록해 약 88.7%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태풍은 지난 20년간 9월 중 총 98개가 발생하여 이 중 11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에 오는 9월 태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 단계 빠른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전망.
- 지난해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1개월 동안 845건(벌쏘임 696건, 뱀물림 65건, 예초기 사고 84건)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951명이 부상을 입었음.
 - 대개 추석 1~3주전 주말을 이용한 벌초 작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 사고 집중도가 높은 만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벌들의 활동이 시작됨을 고려해 안전사고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임.
- 또한 해양사고는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어기인 가을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대형 인명 및 유류오염사고 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선박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.
 -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계절별로 가을철에(30.0%), 유형별로는 기관손상과 충돌이(26.5%, 26.0%), 선종별로는 어선(68.9%), 규모별로는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(71.8%)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(가을철 태풍피해 예방 및 벌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,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, 8/25)